

군 공항 이전... 광주·전남 발전의 기회로

특별법 통과 이후 논의 본격화
광주 국내·무안 국제·함평 군공항
3개 공항 따로 운영 사태 막아야
후보지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군공항 이전 지역 목소리 모아야

전남도가 군 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광주 군 (軍) 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군 공항 이전에 협력하겠지만,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왔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데다 함평 군 일가의 군공항 유치 움직임과 광주 편입 발원, 광주 국내선 이전에 관한 논의 중단 등으로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칫 광주-전남권역 내 3개의 공항이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도의 분명한 의견 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16일 광주 군 공항의 함평 이전 논의와 관련, "함평군민과 전남도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어 광주시 편입과 관련된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함평군이 광주시에 편입되면 전남의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 여건 악화 등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평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주 편입을 전제로 한 군공항 이전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전남도는 또 함평군 일부 단체의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함평군 동시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도교통부가 제 4, 5, 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명시한 점, 광주-전남-무안이 지난 2018년 8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 광주 민간공항의 다른 지역 이전 주장은 혼란만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함평지역에서의 광주시 편입과 광주 군 공항-민간공항 동시 함평 이전 주장 등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자체를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군 공항 특별법 통과로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확보가 후보지 결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전남도가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따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공항 이전이 지연되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 출국장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른 전남지역 여론을 한 데 모으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별정부현의제'에서 광주-전남이 참여해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대책은 도출되지 않았다"며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고 군공항 시설을 이전할 지역이 전남으로 꼽힌다면 사실상 과거에 무안공항 이전이 확정된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전남 지역민들이 수용할 만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설득어나

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별정부현의제'에서 광주-전남이 참여해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대책은 도출되지 않았다"며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고 군공항 시설을 이전할 지역이 전남으로 꼽힌다면 사실상 과거에 무안공항 이전이 확정된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전남 지역민들이 수용할 만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설득어나

한미 공군, 광주기지에서 항공전력 연합편대군종합훈련

17~28일 110여대 참가

한국과 미국 공군이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펼친다.

공군은 오는 17~28일 광주기지에서 연합 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미 연합 항공 전력 110여 대와 한미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나선다.

설 때라는 얘기가.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특 터놓고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韓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2.7%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면서 지난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 9044억8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한국의 수출액(6835억85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집계됐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4년(3.02%) 처음으로 3%를 넘는 이후 2018년(3.09%)까지 5년 연속 3%대를 기록했다. 2017년(3.23%)에는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해 팬데믹(대유행)으로 변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2.85%→2.90%→2.88%→2.74%)으로 2%대에 머물렀다. 작년(2.74%)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은 2008년(2.61%)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다.

2018년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 무역이 확산하고,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같은 기조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범죄에 무방비 노출 ▶6면

승리에 배고픈 기아 무기력한 타이거즈 ▶18면



호남의 누정 - 광주 부용정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